



제주 4·3사건은 어떻게 기억되어 지는가?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 콘텐츠 비교분석을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부교수**

정용복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신명환 경성대학교 LINC+사업단 겸임교수****

이 연구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아 있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어떤 기억체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구글(google) 유튜브에 탑재된 제주 4·3사건 스크립트 182개의 데이터를 미디어 프레임과 사회적 기억 이론을 적용해 다중응답 방식으로 내용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튜브상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방식은 주제적 기억 프레임이 일화적 기억 프레임 보다 많았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의 기억 프레임은 사건규정, 사건갈등, 사건원인, 도덕적 평가, 책임소재의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이에 반해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처방 제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언론의 기억 프레임을 구성하는 하부 프레임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주 4·3사건규정에 대한 언론의 하부 프레임은 양민학살이 가장 많았으며, 좌우이념갈등, 무장봉기, 자주독립운동 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제주 4·3사건의 기억체계는 매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

* 이 논문은 2019년도 제주 4·3평화재단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wansool960@gmail.com

*** cyk1997@hanmail.net

**** shin_comm@naver.com/교신저자

통매체 유튜브는 제주 4·3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이승만 정부의 공권력과 도덕성에서 찾는 반면에, 개인매체 유튜브는 친일세력, 좌우이념 대립, 미군정 개입 차원에서 찾았다. 연구자들은 제주 4·3사건이 유튜브상에 어떤 기억 프레임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매체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로 재현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억체계가 후속 세대들의 역사적 기억에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KEYWORDS 제주 4·3사건, 유튜브 매체, 기억 프레임, 사회적/개인적 기억, 기억 공동체

1. 연구목적

제주 4·3사건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여수·순천사건, 한국전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 아픈 기억의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촉발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규정, 사건원인, 그리고 문제해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대다수 사람들은 제주 4·3사건의 전모와 의미를 주로 생존자, 역사학자, 그리고 미디어에 의존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건, 특히 그것이 이념적 사건일수록 이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편향적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 망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정치 이념적으로 대립이 첨예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기억 공동체 간에 통일된 기억과 해석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성격 규정은 오랫동안 갈등적이면서 분열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후속세대들이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입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데 있다. 과거의 사실은 사료나 증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직접, 또는 간접경험의 지속적인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억은 단지 과거에 대한 회상에

1)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2) 예컨대, 1947년 3·1절 사건과 민관총파업에 대해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3월 19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며, 이 사건은 북조선과의 공동모의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했다(제주4·3평화재단, 2017, 398쪽). 또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도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했다(제주4·3평화재단, 2018, 12쪽).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Carr, 1961, p. 35). 역사적 기억은 개인에 의해, 집단에 의해, 또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거나 재현된다. 지금까지 제주 4·3사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 4·3사건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과거의 화석화된 문헌에 전적으로 의존해 해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전적(典籍)이나 자료가 오늘날 대중들의 머리 속에 작동하는 기억체계를 대표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날 사회 공동체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기억체계를 가졌는지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기억은 과거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현재를 거쳐 미래로 추동하는 집단적 사고이기 때문이다(Harris, Paterson, & Kemp, 2008). 그것은 개인적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적 기억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4·3사건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담론 연구(권귀숙, 2001), 피해자 증언 연구(송혜림, 2019), 미디어 기억 프레임 연구(박동숙 등, 2014; 정용복, 2020), 제주 4·3사건에 대한 세대별 기억연구(권귀숙, 2004), 제주 4·3사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기억연구(현해경·김석윤·김은정, 2020) 등 제한적인 주제에 머물러 왔다. 제주 4·3사건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해되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몇몇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미디어가 특정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도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원인, 성격, 평가, 해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부상한 유튜브(YouTube)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콘텐츠를 내용 분석해 보려고 한다. 유튜브는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보수 미디어와 진보 미디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남성과 여성 등 여러 계층이 4·3사건을 직조(織造)적으로 진단, 평가, 그리고 처방을 제시하는 기억 공간으로써 연구할 가치가 크다. 유튜브는 특히 다른 어떤 대중 매체보다 다양한 나이와 계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4·3사건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억을 폭넓게 파악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다.³⁾ 실제로 제주 4·3사건을 다룬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유튜브 매체는 4·3사건의 사회적 기억공간으로써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는 이론적으로 사회적 담론, 구술 개념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기억 프레임(memory fra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4·3사건의 역사적 기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 오래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는 신문이나 문헌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4·3사건에 대한 연구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영상 매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유튜브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목받는 대중매체이다. 제주 4·3사건을 다룬 유튜브 연구는 대중의 여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연구 소재로 평가된다. 셋째는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이라는 기억망 체계를 통합해 4·3사건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

3) 유튜브는 2016년 3월에는 79억 분으로 카카오톡 189억 분, 네이버 109억 분보다 사용 시간이 작았지만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사용 시간이 증가해 2017년 8월부터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됐다(와이즈앱, 2018).

별적이다. 지금까지 4·3사건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개인의 기억이나, 아니면 미디어와 같은 사회적 기억으로 나눠 살펴보았기 때문에 두 기억 망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유튜브 브상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에 대한 후속 세대들의 기억 프레임을 살펴 보기 위해 제주 4·3사건과 기억의 문제, 기억에 대한 유튜브의 기능, 그리고 기억과 프레임 이론을 순서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제주 4·3사건과 기억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이념적 갈등, 국가적 폭력, 그리고 미군정 체제가 개입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다(송혜림, 2019). 제주 4·3사건 속에는 ‘빨갱이’, ‘폭도’ 등의 적색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주입되어 있어 생존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왔다(송혜림, 2019). 특히 제주 4·3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재판 절차 없이 무고한 비무장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자 과오로 평가된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539쪽). 이 때문에 4·3사건은 국가에 의해 은폐되고 오랜 기간 말해줄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역사’로 인식되어 왔다(송혜림, 2019; 조명기·장세용, 2013). 제주 4·3사건은 망각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뒤늦게 사회적 담론으로 재현된 ‘침묵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 4·3 사건 속에는 오랫동안 중층적인 기억의 억압 기제들이 도사려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은 역사나 지배 담론이 아닌 대중들의 담론을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권귀숙, 2001, 2004). 제주 4·3사건은 분당과 반공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온 정치권력의 공식역사와 대치되었기 때

문에, 다른 기억은 강압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조명기·장세용, 2013). 제주 4·3사건은 1980년 후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표출되기 전까지만 해도(권귀숙, 2001), 공산 무장 폭도가 봉기해 국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남한 교란작전의 하나로 기록됐다(김종민, 1999). 제주 4·3사건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지식인과 언론을 중심으로 민중항쟁론과 양민학살론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제기(박명림, 1988, 박찬식, 1998; 조남수, 1988)되는 것을 계기로 제주도의회에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1993년), 피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1995년), 합동위령제(1994년)가 열렸다. 특히 이 시기에는 4·3 관련 자료인 1940-50년대의 미군정 보고서(G-2 보고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와 같은 미국 정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억압된 기억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 정치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늘어났다. 당시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재현은 과거 정부의 공식 기억(official memory)을 강조하는 대신에 4·3사건의 진상을 찾으려는 탐사보도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권귀숙(2003)은 1989년 4월 제주MBC의 첫 4·3 다큐방송을 시작으로 2003년 말까지의 4·3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제주 4·3에 대한 대항 기억의 형성과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그 이후에도 신문과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에 대한 사회적 조명이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4·3 특별법의 제정(2000년), 4·3진상보고서 확정(2003년), 제주 4·3평화공원 조성(2003년), 제주 4·3평화재단 설립(2008년), 제주 4·3 국가기념일 지정(2014년) 등 법제적인 성과들로 이어졌다.

대중 매체들을 중심으로 다뤄지던 제주 4·3사건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권귀숙(2001)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인 “산사람(일명 산군)”, “남로당원”, “우익 및 우익가족”, “피난민”, “농민”, “제주 출신 경찰”, “제주 출신 경비대”, “자경단원”, “서북청년단원(일명 서청)” 등 다양한 생존자들이 증언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출신 성분별 사회적 기억체계의 상이성을 확인했다. 권귀숙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출신 성분에 따라 기억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반면에, 가해자의 기억이나 치욕적인 기억은 억압되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명기와 장세용(2013)도 권귀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제주 4.3사건에 관한 로컬기억(local memory)이 국가가 오랫동안 장악해온 이데올로기 담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전이(transference)와 포섭(subsumption)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과정을 논의했다. 다시 말하면, 권귀숙과 조명기 등의 연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주도의 기억망이 제주 지역주민들과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기억이 재구성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현혜경, 김석운, 그리고 김은정(2020)은 기억후속 세대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기억하는 제주 4·3사건은 주로 양민학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언론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의외로 적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학 연구는 김광우(1994), 이관열(2003), 박동숙과 연구동료들(2014), 조명기(2018), 그리고 정용복(2020)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김광우(1994)의 논문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93년 5월까지 전국지와 지역지 등 7개 신문을 대상으로 제주 4·3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한겨레>가 전국지 전체 보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사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 지역신문인 <제민일보>와 함께 4·3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관열(2003)의 논문은 제주 4·3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 언론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론 연구에 해당한다. 박동숙 등(2014)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

향신문), 〈한겨레〉의 4·3기사에 대한 연도별 보도량과 주제, 기사의 의미와 기사 속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스 미디어의 갈등 내용과 모습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뉴스 미디어의 기억 전쟁이 왜곡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정용복(2020)은 제주 4·3 보도 양상을 보수지 〈조선일보〉, 진보지 〈한겨레〉, 그리고 지역지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도유형과 보도태도, 보도 프레임을 밝혀냈다. 그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텍스트 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제주일보〉와 〈한라일보〉, 〈제민일보〉에서는 지역성의 반영에 따라 대체로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국지와 지역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 구성의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조명기(2018)는 4·3사건의 기억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비념〉의 분석을 통해 시간적으로 현재와 과거의 기억충돌, 외부인·순례자와 4·3사건 생존자의 상이한 기억양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제주 4·3에 대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언론학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도 적거니와, 주로 신문매체의 내용분석에 의존해 수행됐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4·3사건에 관한 기억연구는 일부 사회학자(권귀숙)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을 뿐,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중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언론학자에 의해 주도된 기억연구는 거의 없다(조명기, 2018; 조명기·장세용, 2013). 국내의 이런 연구경향은 외국에서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Holocaust) 사건에 관한 언론의 기억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Assmann, 2010; Berger, 2017; Hoskins, 2003; Meyers, Neiger & Zandberg, 2014; Young, 1993 참조). 언론 가운데 특히 유튜브상에 재현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정 사회의 기억연구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부상한 유튜브는 기존의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매체의 사회적 기억방식은 물론 개인의 기억체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튜브 매체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재현하는 기억의 저장소로써 사회주체들의 다양한 기억을 추출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전쟁이나 폭력같은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체계를 탐구한 예는 많지 않다(Danilova, 2014; Drinot, 2011).

2) 기억에 대한 유튜브의 기능

오늘날 미디어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형식은 영상이며, 영상의 유통 플랫폼으로 널리 선호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이다(박정어·임지은·황장선, 2018; 오세욱, 2019). 유튜브는 이제 가장 강력한 정보전달 매체이자, 사회적 공론장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특히 사회운동이나 여론환기를 위한 작업에 용이하며, 특히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 채널로 자주 활용된다(정민아, 2013). 유튜브는 여러 행위자가 자신의 이념적 의제를 담아 재구성하거나 리믹스트(remixed)하는 매스미디어로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전통 매체(established media)에서부터 활동가(activist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사회문제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Smit, Heinrich & Broersma, 2017). 많은 연구들이 유튜브를 온라인 참여문화의 예로서 자주 언급하거나 과거에 대한 자기표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는 기억이 어떻게 순환되고, 재생되고, 도전받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Makhortykh, 2020).

유튜브는 특히 전쟁, 폭력, 갈등과 같은 비극적 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Makhortykh, 2019). 유튜브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미디어와는 달리 대중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희생자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추모를 하는 특별한 기억공간이다. 유튜브상에 나타난 아프간과 이라크 참전 군인들의 죽음에 대한 추모체계를 분석한 크누드센과 스테지(Knudsen & Stage, 2013)는 군인

들의 죽음이 어떻게 공동체 슬픔의 대상으로 다뤄지는지, 또 어떤 유형의 추모관행이 이뤄지는지 탐구했다. 크누드센 등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유튜브는 군인을 국가적 영웅으로, 또 슬픔의 공통적인 대상으로 구성하거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 표출을 하는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Knudsen & Stage, 2012). 크누드센과 스테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기능적으로 기존의 정립된 기억 관행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억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민주화된 기억 관행(democratized memory practice)”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지배담론에 대한 현재의 대항담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크누드센과 스테지는 유튜브의 민주주의적 기억 관행은 “전쟁”과 같은 사례에서 특히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국가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다니로바(Danilova, 2014)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영국 병사 희생자들에 관한 가상기억 연구에서 유튜브는 논쟁적인 과거 사건의 주류 해석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 공적 담론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희생을 낳고, 그 결과 아픈 기억에 대한 논쟁적 갈등을 남기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가 빚어낸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제주 4·3사건은 전쟁과 폭력을 수반한 역사적 사건으로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이 치열하게 논쟁해온 갈등이슈라는 점에서 유튜브 내용분석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소재로 볼 수 있다.

3) 기억과 프레임

우리는 위의 연구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적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스만(Assmann, 2006)과 알박스(Halbwachs, 1950)의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개념을 적용한다. 개인적 기억은 개인의 자서전적 또는 주관적 경험을 거친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으로 정의된다. 일화적 기억은 개인이 일상의 경험 과정에 형

성된 사적 기억(private memory)인데, 이는 개인, 가족, 교회, 회사, 정당과 같은 개별, 또는 특정 소단위 조직 속에서 이뤄지는 기억방식에 해당한다(Haugbolle, 2005). 집단적 기억은 사회적 사건이나 관행,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적 기억(public memory)에 가깝다. 집단적 기억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지니는 개별적 기억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Olick, 1999). 다시 말하면, 집단적 기억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특정 매개를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Harris, Paterson & Kemp, 2008). 킬스트롬(Kihlstrom, 2002)은 사람들은 집단기억을 통해 과거에 알지 못했거나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mnemonic communities)”의 일원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대표적인 사회적 기억 공동체로 기능한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모든 기억은 선택적이다. 어떤 기억은 선택, 강조, 재현되지만 어떤 기억은 무시, 약화되어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이완수, 2017).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는 기억은 곧 ‘선택된 기억(selective memory)’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엔트만(Entman, 1993)과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제안한 프레임 개념을 기억 문제에 연결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엔트만은 사건을 해석할 때 사건규정(problem definition), 원인해석(causal interpret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그리고 해법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 등 4개의 프레임을 제시했는데, 이를 기억의 문제에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기억할 때 자신이 지닌 경험이나 단서, 그리고 가치나 신념체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생각의 프레임은 기억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한다. 프레임은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 사용하는 인식의 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해 갖는 기억의 틀이기도 하다(Zarecka, 2017).

콘텐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프레임은 콘텐츠 생산자가 선택, 배제, 부각, 해석한 관점의 결과물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프레임은 이를 재현하는 사람의 선택적 행위와 연관된다. 이에 대해 엔트만(Entman, 1933)은 프레이밍(framing)을 사회 현실 속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 부각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를 구성하는 표현행위로 보았다. 한마디로 프레이밍은 어떤 사안의 많은 요소 가운데 특정한 측면을 보다 강조해 드러내 보여주는 선택행위인 셈이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프레임은 늘 객관적이거나 고정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해 지배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슈의 성격이나 속성, 그리고 행위 주체자의 특성에 따라 프레임이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프레임은 무엇을(what)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무엇을 어떻게(how) 보여주는데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이엔가(Iyengar, 1991)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단편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ame)’과 사안의 구조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아이엔가의 프레임 구분방식은 사안을 가장 간명하게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사안은 이 두 가지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프레임 구분은 텍스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 체계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좀 더 세분화해 제시했다. 엔트만은 프레임을 텍스트 내 진술문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을 제시했는데, 크게 진단(diagnose), 평가(evaluate), 처방(prescribe)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눴다. 엔트만은 이를 더 구체화해 문제 정의, 원인진단, 도덕적 평가, 그리고 해법제시 등으로 프레임을 구분해 제시했다. 문제 정의는 기억 주체자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이고, 원인해석은 사건의 발생 원인 주체자가 누구인지, 또는

원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볼 수 있는 프레임 개념이다. 도덕적 평가는 그 사건을 윤리적,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행위의 선악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개념이며, 해법 제시는 사건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기억 형태로 재현하는 개념이다. 엔트만의 주장을 빌리면, 언론의 프레임은 문제, 원인, 평가, 그리고 해법에 대한 요소를 특별히 선택해 강조하는 구성행위로 볼 수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사건은 사실 이들 네 가지 요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뉴만, 저스트, 그리고 크리거(Neuman, Just, & Criger, 1992)는 언론 보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프레임을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s), 갈등(conflict), 무력감(powerlessness), 인간적 영향(human impact), 도덕성(morality) 등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뉴만 등의 프레임 구분은 언론이 사회적 사안을 인간의 심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조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갈등, 무력감, 인간적 영향, 도덕성은 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도 뉴만 등과 비슷하게 책임의 소재(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갈등,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도덕성 등으로 구분해 프레임을 제시했다. 다만, 세메트코와 발켄버그는 책임의 소재를 프레임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특별히 강조한 점이 다르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 역시 성격상 넓게는 사건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처방의 관점으로, 좁게는 책임, 갈등, 도덕적 행위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분석을 기억이론과 프레임 이론을 혼용해 수행해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내용

지금까지 국내의 어떤 연구도 디지털 미디어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의 기억 문제를 다룬 예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는 다른 어떤 전통매체보다 과거 사실의 재구성을 포함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전달을 한다(Makhortykh, 2019, 2020). 디지털 기술은 개인들이 과거의 사실과 더 친밀하고 상호작용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양식과 이야기 형식을 가능케 해준다(Makhortykh, 2019). 과거의 기억을 재현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미디어가 바로 유튜브이다. 한 예로 마크호르츠크(2019)는 유튜브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이용자들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유튜브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했다. 마크호르츠크(2019)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기억 관행을 민주화⁴⁾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과거 기억에 대한 다원적 관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슨과 존스(Gibson & Jones, 2012)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사회적 집단기억을 구성하고 확장하는데 유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김슨 등(2012)은 유튜브를 '전쟁 기억'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연구목적은 4·3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 후속 세대들의 기억문제를 다루는데 있다. 그동안 4·3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기초한 구술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다수의 기억 후속 세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현해경 등, 2020). 우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후속 세대들의 역사적 기억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상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유튜브 내용분석은 사회적 기억과 함께 개인적 기억을 동시에

4) 여기서 민주화는 기억을 제한 없이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보는데 유용성이 크다. 유튜브는 앞서 설명한대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기억 매체이다.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매체유형을 기존의 신문, 방송이 제작한 전통매체 유튜브와 일반 전문가 개인이 제작한 개인매체 유튜브로 구분해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전통매체 유튜브는 그 사회의 집단적 규범이나 가치를 더 강조하는데 반해, 개인매체 유튜브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이나 감정을 더 반영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매체는 그들이 비록 유튜브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그 사회의 집단적 가치, 미덕, 그리고 규범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Hume, 2000). 하지만 일반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상, 그리고 자율적 가치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다 자유롭게 제작할 여지가 많다. 전통매체 유튜브는 그 사회의 집단적 사고를 보여주는 데 이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매체 유튜브는 특정인의 개인적 사고를 잘 보여주기엔 유리하다. 따라서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 간의 기억체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 연구자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연구를 크게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 내용으로 나눠 살펴보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억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 프레임을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는가?

연구문제 2: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하부 기억 프레임을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는가?

연구문제 3: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는 제주 4·3사건의 시공간성과 상징성에 대한 기억 프레임을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는가?

4. 연구방법

1) 유튜브 분석

(1) 자료수집과 절차

분석 데이터는 구글(google) 유튜브에 탑재된 제주 4·3사건에 대한 동영상이다. 연구자들은 제주 4·3사건을 업로드한 첫 시점으로부터 수집 마지막 시점(2019년 12월 1일 검색)까지를 기준으로 ‘제주 4·3사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유튜브상에 실린 관련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다. 유튜브에 탑재된 제주 4·3사건 영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가 제작한 경우와 전문가나 일반개인이 직접 제작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수집된 관련 데이터는 400여 건이었다. 이들 데이터 가운데 제주 4·3에 대한 회고적 기억이나 역사적 의미를 다루지 않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간략한 사담(私談) 등에 대한 영상은 제외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단위는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주 4·3사건 관련 개별 스크립트이며, 분석에 적절한 데이터는 모두 180건이었다.

(2) 분석 유목

분석 유목은 매체유형, 기억방식, 사건에 대한 기억 프레임, 사건에 대한 세부별 기억 프레임, 시·공간성과 상징성에 대한 기억 재현으로 설정해 분석했다. 분석틀은 아이엔가(Iyengar, 1991), 엔트만(Entman, 1993),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프레임 개념을 차용했으며, 이에 대한 하부 프레임은 연구자들이 제주 4·3사건의 내용에 맞춰 연역적으로 재구성했다. 하부 프레임의 경우는 일차로 제주 4·3평화재단이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 4·3바로알기> 자료를⁵⁾ 토대로 사건의 역사적 개요

5)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 4·3바로알기>는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를 파악한 뒤 사건규정, 원인해석, 해법제시, 도덕적 평가, 해법제시, 갈등주체, 책임소재, 그리고 시·공간성과 상징성으로 유목을 분류해 관련 프레임 추출했다. 구체적으로 하부 프레임은 연구자의 1명이 제주 4·3사건을 기록한 공식문헌을 전체적으로 숙독한 뒤 핵심 프레임의 속성에 맞춰 재 추출했다. 기억 프레임별로 유목별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분석 유목		유목에 대한 설명
매체유형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전통매체 콘텐츠와 유튜브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콘텐츠로 구분. 전통매체는 지상파, 종편, 연합뉴스TV, 그리고 신문사 비디오 등이며, 유튜브 매체는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순수 유튜브형으로 제작한 경우
기억방식		사적기억인 일화적 기억과 공적기억인 주제적 기억으로 구분. 일화적 기억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이나 회상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주제적 기억은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국가적 제도나 해결방법 등에 대해 기억하는 경우로 조작적 정의
기억 프레임	사건규정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 (1) 좌우이념갈등 (2) 자주독립(혹은 독립건국) 운동 (3) 무장봉기(빨치산 투쟁/폭동사건)(예: 공산주의 난동) (5) 일제 적폐청산 (6) 기타 (7)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원인해석	사건의 발단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1) 도민 거리시위 (2) 관료들의 부정부패 (3) 3.1절 발포사건 (4) 경찰 과잉대응 (5) 미군정의 억압 및 술책 (6) 3.10 총파업 (7) 생계 곤란(예: 식량부족 등) (8) 남한 단독선거(5.10 선거) 반대 (9) 빨치산 토벌 (10) 서북 청년회 횡포 (11) 기타 (12)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해법제시	사건에 대한 대안과 해법제시에 대한 문제 (1) 정부 차원에서 사과 (2) 정부 차원에서 보상 (3) 43사건 규명 (4) 43사건 가해자들의 사과 (5) 43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6) 43사건 추념일 지정 (7) 기타 (8)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도덕적 평가	사건 주체자(개인, 집단, 정부, 국가 등)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 (1) 양민학살 (2) 약탈 (3) 보복과 탄압 (4) 공포정치 (5) (일제) 기득권 세력 유지 (6) 사건 은폐 (7) 빨갱이 낙인찍기 (8) 기타 (9)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사실을 소상하게 정리해두고 있어 사건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분석 유목	유목에 대한 설명	
	갈등주체	사건과 관련된 개인, 집단, 조직, 국가 간 대립이나 갈등에 관한 내용 (1) 미군정 (2) 이승만 정부 (3) 군인과 경찰 (4) 서북청년회 (5) 친일세력 (6) 좌익세력 (7) 제주도 인민위원회 (8) 제주도민 (9) 기타 (10)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책임소재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 (1) 미군정 (2) 이승만 정부 (3) 군인과 경찰 (4) 서북청년회 (5) 친일세력 (6) 좌익세력 (7) 제주도 인민위원회 (8) 제주도민 (9) 기타 (10) 해당 사항 없음으로 구분
시공간성과 상징성에 대한 기억 재현	시간성	시간성은 제주 43사건을 조명하는 과정에 강조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1) 과거 (2) 현재 (3) 미래로 구분
	공간성	제주 43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강조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 제주도지역 전역 (2) 적성구역(해안선 5킬로 이상 지역) (3) 오라동 연미마을(일명 오라리) (4) 한라산 (5) 제주43평화공원 (6)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구분
	상징성	제주 43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강조되는 상징기호로 (1) 오라리 방화 사건 (2) 오줌허벅(비료용 소변을 담아 운반하는 둥근 항아리) (3) 백미(어떤 연유로 이름을 새기지 못한 비석)로 구분

(3) 분석절차와 방법

데이터 분석은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코더 2명이 전수 수집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유튜브 스크립트(scripts)를 대상으로 분석 유목에 따라 코딩작업을 실시했다. 분석은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응답으로 코딩한 이유는 제주 4·3사건의 개별 콘텐츠에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점검해보기 위해서였다. 분석방법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상을 대상으로 기억이론에 근거해 프레임 중심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코더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관련 영상 스크립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전에 작성된 코드북에 따라 해당되는 프레임을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목 간 신뢰도 수준은 크리펜도르프의 알파(Krippendorff's alpha) 공식을 통해 측정했다. 코더 간 신뢰도 계수는 매체유형 1.0, 기억방식 0.87, 기억 프레임 유목 0.70-0.81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5. 연구 결과

1)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 기억 프레임

제주 4·3사건의 기억방식을 매체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분석결과, 기억방식은 전체적으로 주제적 기억 프레임(71.7%)이 일화적 기억 프레임(25.0%)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매체유형에 따라 기억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4·3사건은 매체유형과 관계없이 주제적 기억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통매체 유튜브가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개인매체 유튜브는 일화적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표 2.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 기억방식

구 분		매체유형		합계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기억방식 ¹⁾	일화적 기억	17(22.7%)	28(26.7%)	45(25.0%)
	주제적 기억	53(70.7%)	76(72.5%)	129(71.7%)
	혼합형 기억	5(6.7%)	1(1.0%)	6(3.3%)
합계		75(100%)	105(100%)	180(100%)

¹⁾ P = NS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의 기억프레임은 사건규정(73.9%)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원인해석(49.4%), 갈등프레임(49.4%), 책임소재(49.4%), 도덕적 평가(41.1%), 그리고 해법제시 프레임(20.6%)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매체유형에 따라 제주 4·3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건규정 프레임이 전통매체(62.7%)와 개인매체(81.9%)에서 모두 가장 많이 언급됐다. 그러나 전통매체는 책임소재 프레임(54.7%)을, 개인매체는 사건 발생의 원인프레임(60.0%)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해법제시는 전통매체(25.3%)와 개인매체(17.1%) 모

두에서 다른 기억프레임에 비해 적게 다뤄졌다. 주목할 점은 원인해석의 빈도가 전통매체(34.7%)와 개인매체(60.0%)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 4·3사건의 원인에 대한 해석 프레임을 개인매체가 전통매체에 비해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 기억 프레임

구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기억 프레임	사건규정 ¹⁾	47(62.7%)	86(81.9%)	133(73.9%)
	원인해석 ²⁾	26(34.7%)	63(60.0%)	89(49.4%)
	도덕평가 ³⁾	38(50.7%)	36(34.3%)	74(41.1%)
	해법제시 ⁴⁾	19(25.3%)	18(17.1%)	37(20.6%)
	갈등중심 ⁵⁾	35(46.7%)	54(51.4%)	89(49.4%)
	책임소재 ⁶⁾	41(54.7%)	48(45.7%)	89(49.4%)
총 건수		75	105	180(100%)

¹⁾ $\chi^2=8.39$, $df = 1$, $P < .01$, ²⁾ $\chi^2=11.23$, $df = 1$, $P < .001$, ³⁾ $\chi^2=4.84$, $df = 1$, $P < .05$,
⁴⁾ $P = NS$, ⁵⁾ $P = NS$, ⁶⁾ $P = NS$.

2) 사건규정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을 규정하는 하부 프레임을 6가지 항목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양민학살(64.4%)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좌우이념갈등(25.6%), 무장봉기(23.3%) 순으로 언급됐다(〈표 4〉 참조). 매체별로는 양민학살이 전통매체(69.3%)와 개인매체(61.0%) 모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특히 개인매체는 전통매체와는 달리 좌우이념갈등 프레임(33.3%), 무장봉기 프레임(27.6%)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표 4.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규정 하부 프레임

구 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투브	개인매체 유투브	
사건규정	양민학살 ¹⁾	52(69.3%)	64(61.0%)	116(64.4%)
	좌우이념갈등 ²⁾	11(14.7%)	35(33.3%)	46(25.6%)
	자주독립운동 ³⁾	3(4.0%)	11(10.5%)	14(7.8%)
	무장봉기 ⁴⁾	13(17.3%)	29(27.6%)	42(23.3%)
	일제적폐청산 ⁵⁾	2(2.7%)	2(1.9%)	4(2.2%)
	해당없음 ⁶⁾	16(21.3%)	12(11.4%)	28(15.6%)
총 건수		75	105	180(100%)

¹⁾ P = NS, ²⁾ $\chi^2=8.01$, df = 1, P < .01, ³⁾ NS, ⁴⁾ NS, ⁵⁾ P = NS, ⁶⁾ $\chi^2=3.26$, df = 1, P < .01.

3) 사건 발생 원인해석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하부 프레임은 경찰과잉대응(35.6%), 도민 거리시위(21.7%), 남한단독선거(18.3%), 관료들의 부정부패(17.8%), 그리고 미군정의 억압과 술책(17.8%) 순으로 언급됐다(〈표 5〉 참조). 즉 전통매체와 개인매체 모두 제주 4·3사건의 원인으로 경찰과잉대응에 따른 도민의 거리시위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매체 유형별로는 전통매체는 경찰과잉대응(29.3%), 도민 거리시위(25.3%)를 강조했으며, 개인매체는 경찰과잉대응(40.0%)과 남한단독선거(22.9%)를 강조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통매체와 개인매체 모두 제주 4·3사건 발생 원인을 경찰의 과잉대응에 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매체가 전통매체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많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개인매체의 경우 남한단독선거를 4·3사건의 원인으로 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5.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 원인해석 하부 프레임

구 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원인해석	도민 거리시위 ¹⁾	19(25.3%)	20(19.0%)	39(21.7%)
	관료들의 부정부패 ²⁾	13(17.3%)	19(18.1%)	32(17.8%)
	3.1절 발포사건 ³⁾	10(13.3%)	14(13.3%)	24(13.3%)
	경찰과잉대응 ⁴⁾	22(29.3%)	42(40.0%)	64(35.6%)
	미군정의 억압과 술책 ⁵⁾	10(13.3%)	22(21.0%)	32(17.8%)
	총피업 ⁶⁾	2(2.7%)	10(9.5%)	12(6.7%)
	생계곤란 ⁷⁾	2(2.7%)	4(3.8%)	6(3.3%)
	남한단독선거 ⁸⁾	9(12.0%)	24(22.9%)	33(18.3%)
	빨치산토벌 ⁹⁾	5(6.7%)	9(8.6%)	14(7.8%)
	서북청년회 횡포 ¹⁰⁾	1(1.3%)	6(5.7%)	7(3.9%)
	기타 ¹¹⁾	4(5.3%)	8(7.6%)	12(6.7%)
	해당없음 ¹²⁾	17(22.7%)	12(11.4%)	29(16.1%)
총 건수	75	105	180(100%)	

1) P = NS, 2) P = NS, 3) P = NS, 4) P = NS, 5) P = NS, 6) $\chi^2=3.30$, df = 1, P < .1, 7) P = NS, 8) $\chi^2=3.44$, df = 1, P < .1, 9) P = NS, 10) P = NS, 11) P = NS, 12) $\chi^2=4.08$, df = 1, P < .05.

4) 도덕적/ 윤리적 평가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행위 프레임의 경우 양민학살(63.9%)이 가장 많았으며, 공포정치(18.3%), 보복과 탄압(17.8%), 그리고 빨갱이 낙인찍기(17.8%)의 순으로 언급됐다(〈표 6〉 참조). 이에 반해 약탈(5.0%)과 기득권세력유지(5.0%)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민학살은 두 매체 모두에서 가장 많이 다뤘으나, 특히 전통매체는 양민학살과 빨갱이 낙인찍기(14.7%)를 더 많이 강조했으며, 개인매체는 공포정치(22.9%), 보복과 탄압(21.9%), 그리고 빨갱이 낙인찍기(20.0%) 프레임을 고루고루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6.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의 도덕적/윤리적 행위 하부 프레임

구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도덕적/ 윤리적 행위	양민학살 ¹⁾	53(70.7%)	62(59.0%)	115(63.9%)
	약탈 ²⁾	2(2.7%)	7(6.7%)	9(5.0%)
	보복과 탄압 ³⁾	9(12.0%)	23(21.9%)	32(17.8%)
	공포정치 ⁴⁾	9(12.0%)	24(22.9%)	33(18.3%)
	기득권세력유지 ⁵⁾	3(4.0%)	6(5.7%)	9(5.0%)
	사건은폐 ⁶⁾	3(4.0%)	12(11.4%)	15(8.3%)
	빨갱이 낙인찍기 ⁷⁾	11(14.7%)	21(20.0%)	32(17.8%)
	기타 ⁸⁾	2(2.7%)	3(2.9%)	5(2.8%)
	해당없음 ⁹⁾	15(20.0%)	20(19.0%)	35(19.4%)
총 건수	75	105	180(100%)	

¹⁾ P = NS, ²⁾ P = NS, ³⁾ $\chi^2=2.93$, df = 1, P < .1, ⁴⁾ $\chi^2=3.44$, df = 1, P < .1, ⁵⁾ P = NS, ⁶⁾ $\chi^2=3.16$, df = 1, P < .1, ⁷⁾ P = NS, ⁸⁾ P = NS, ⁹⁾ P = NS.

5) 해법제시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 문제해결방법 프레임에서는 사건규명(25.0%)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서 정부사과(23.3%), 정부보상(13.3%), 가해자 사과(7.8%), 추념일 지정(6.7%)순으로 많이 강조됐다(〈표 7〉 참조). 매체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정부사과(33.3%), 개인매체는 사건규명(24.8%)을 각각 가장 많이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전통매체(0%), 개인매체(2.9%) 모두에 걸쳐 미미하게 다뤘다. 그러나 전통매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가해자 처벌을 통한 해법이 적게나마 개인매체에서는 나타났다.

표 7. 매체 유형별 제주 4·3사건 문제해법 하부 프레임

구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문제해법	정부사과 ¹⁾	25(33.3%)	17(16.2%)	42(23.3%)
	정부보상 ²⁾	14(18.7%)	10(9.5%)	24(13.3%)
	사건규명 ³⁾	19(25.3%)	26(24.8%)	45(25.0%)
	가해자 사과 ⁴⁾	6(8.0%)	8(7.6%)	14(7.8%)
	가해자 처벌 ⁵⁾	0(0%)	3(2.9%)	3(1.7%)
	추념일 지정 ⁶⁾	4(5.3%)	8(7.6%)	12(6.7%)
	기타 ⁷⁾	10(13.3%)	14(13.3%)	24(13.3%)
	해당없음 ⁸⁾	28(37.3%)	48(45.7%)	76(42.2%)
총 건수	75	105	180(100%)	

¹⁾ $\chi^2=7.18$, $df = 1$, $P < .05$, ²⁾ $\chi^2=3.16$, $df = 1$, $P < .1$, ³⁾ $P = NS$, ⁴⁾ $P = NS$, ⁵⁾ $P = NS$,
⁶⁾ $P = NS$, ⁷⁾ $P = NS$, ⁸⁾ $P = NS$.

6) 갈등주체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 갈등유발 주체 프레임은 군인과 경찰(46.7%), 이승만 정부(38.9%), 미군정(25.6%), 좌익세력(15.0%) 순으로 강조됐다(〈표 8〉 참조). 갈등유발 주체에 대한 매체별 프레임을 보면, 군인과 경찰이 전통매체(42.7%)와 개인매체(49.5%) 모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특히 전통매체에서는 군인과 경찰, 이승만 정부(30.7%)가 주로 갈등유발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매체는 군인과 경찰, 이승만 정부(44.8%)를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도 전통매체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 미군정(31.4%), 서북청년회(8.6%), 친일세력(8.6%)을 다루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표 8. 매체 유형별 갈등유발 주체 하부 프레임

구 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투브	개인매체 유투브		
갈등유발 주체	미군정 ¹⁾	13(17.3%)	33(31.4%)	46(25.6%)
	이승만 정부 ²⁾	23(30.7%)	47(44.8%)	70(38.9%)
	군인과 경찰 ³⁾	32(42.7%)	52(49.5%)	84(46.7%)
	서북청년회 ⁴⁾	2(2.7%)	9(8.6%)	11(6.1%)
	친일세력 ⁵⁾	3(4.0%)	9(8.6%)	12(6.7%)
	좌익세력 ⁶⁾	8(10.7%)	19(18.1%)	27(15.0%)
	인민위원회 ⁷⁾	0(0%)	3(2.9%)	3(1.7%)
	제주도민 ⁸⁾	5(6.7%)	16(15.2%)	21(11.7%)
	기타 ⁹⁾	0(0%)	3(2.9%)	3(1.7%)
	해당없음 ¹⁰⁾	23(30.7%)	13(12.4%)	36(20.0%)
총 건수	75	105	180(100%)	

¹⁾ $\chi^2=4.56$, $df = 1$, $P < .05$, ²⁾ $\chi^2=3.65$, $df = 1$, $P < .1$, ³⁾ $P = NS$, ⁴⁾ $P = NS$, ⁵⁾ $P = NS$, ⁶⁾ $P = NS$, ⁷⁾ $P = NS$, ⁸⁾ $\chi^2=3.11$, $df = 1$, $P < .1$, ⁹⁾ $P = NS$, ¹⁰⁾ $\chi^2=9.14$, $df = 1$, $P < .05$

7) 책임소재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의 책임소재 기억프레임에 대해서는 군인과 경찰(36.1%), 이승만 정부(33.3%)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미군정(22.2%), 좌익 세력(13.9%)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전통매체와 개인매체 모두 제주 4·3사건의 책임주체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특히 전통매체가 제주 4·3 사건 책임주체에 대해 군인과 경찰, 이승만 정부에 집중한데 반해, 개인매체는 군인과 경찰, 이승만 정부, 미군정, 좌익세력 등 책임소재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표 9. 매체 유형별 책임소재 하부 프레임

구 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책임소재	미군정 ¹⁾	14(18.7%)	26(24.8%)	40(22.2%)
	이승만 정부 ²⁾	25(33.3%)	35(33.3%)	60(33.3%)
	군인과 경찰 ³⁾	26(34.7%)	39(37.1%)	65(36.1%)
	서북청년회 ⁴⁾	0(0%)	6(5.7%)	6(3.3%)
	친일세력 ⁵⁾	2(2.7%)	6(5.7%)	8(4.4%)
	좌익세력 ⁶⁾	5(6.7%)	20(19.0%)	25(13.9%)
	제주도 인민위원회 ⁷⁾	0(0%)	3(2.9%)	3(1.7%)
	기타 ⁸⁾	0(0%)	5(4.8%)	5(2.8%)
	해당없음 ⁹⁾	24(32.0%)	23(21.9%)	47(26.1%)
총 건수	75	105	180(100%)	

¹⁾ P = NS, ²⁾ P = NS, ³⁾ P = NS, ⁴⁾ $\chi^2=4.43$, df = 1, P < .05, ⁵⁾ P = NS, ⁶⁾ $\chi^2=5.60$, df = 1, P < .05, ⁷⁾ P = NS, ⁸⁾ $\chi^2=3.67$, df = 1, P < .1, ⁹⁾ P = NS.

8) 사건 시간성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에 대한 시간성 문제는 과거(83.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현재(51.4%), 그리고 미래(15.6%) 순으로 언급됐다(〈표 10〉 참조). 제주 4·3사건의 시간성에 대해서는 전통매체(78.7%)와 개인매체(86.7%) 모두 과거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전통매체는 제주 4·3사건을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더 강조하는데 반해, 개인매체는 과거시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표 10. 매체 유형별 사건 시간성 하부 프레임

구 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시점	과거 ¹⁾	59(78.7%)	91(86.7%)	150(83.3%)
	현재 ²⁾	40(53.3%)	54(51.4%)	94(52.2%)
	미래 ³⁾	15(20.0%)	13(12.4%)	28(15.6%)
	해당없음 ⁴⁾	2(2.7%)	3(2.9%)	5(2.8%)
총 건수	75	105	180(100%)	

¹⁾²⁾³⁾⁴⁾ P = NS.

9) 사건 공간성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간성 문제는 제주도 전역(47.2%)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한라산(17.2%), 적성구역(11.7%), 연미마을(8.3%)의 순으로 언급됐다(〈표 11〉 참조). 매체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매체는 전통매체와는 달리 연미마을(11.4%)과 4·3평화기념관(8.6%)을 비교적 많이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표 11. 매체 유형별 사건 공간성 하부 프레임

구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공간	제주도 전역 ¹⁾	35(46.7%)	50(47.6%)	85(47.2%)
	적성구역 ²⁾	8(10.7%)	13(12.4%)	21(11.7%)
	연미마을 ³⁾	3(4.0%)	12(11.4%)	15(8.3%)
	안덕리 ⁴⁾	1(1.3%)	4(3.8%)	5(2.8%)
	한라산 ⁵⁾	12(16.0%)	19(18.1%)	31(17.2%)
	4·3평화공원 ⁶⁾	5(6.7%)	5(4.8%)	10(5.6%)
	4·3평화기념관 ⁷⁾	3(4.0%)	9(8.6%)	12(6.7%)
	해당없음 ⁸⁾	22(29.3%)	24(22.9%)	46(25.6%)
총 건수		75	105	180(100%)

¹⁾ P = NS, ²⁾ P = NS, ³⁾ $\chi^2=3.16$, df = 1, P < .1, ⁴⁾ P = NS, ⁵⁾ P = NS, ⁶⁾ P = NS, ⁷⁾ P = NS, ⁸⁾ P = NS.

10) 사건 상징성에 대한 매체 유형별 하부 프레임

제주 4·3사건에 대한 상징기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백비(7.8%), 횃불(5.6%)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다(〈표 12〉 참조). 매체별로는 전통매체의 경우 백비(10.7%)를, 개인매체는 백비(5.7%)와 함께 횃불(5.7%)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상징성 기억이 기억 주체자를 통해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

표 12. 매체 유형별 사건 상징성 하부 프레임

구분		매체유형		총 건수
		전통매체 유튜브	개인매체 유튜브	
상징기호	햇볕1)	4(5.3%)	6(5.7%)	10(5.6%)
	오줌허벅2)	2(2.7%)	2(1.9%)	4(2.2%)
	감자3)	2(2.7%)	3(2.9%)	5(2.8%)
	백비4)	8(10.7%)	6(5.7%)	14(7.8%)
	기타5)	4(5.3%)	11(10.5%)	15(8.3%)
	해당없음6)	59(78.7%)	80(76.2%)	139(77.2%)
총 건수		75	105	180(100%)

1)2)3)4)5)6) P = NS.

6. 결론과 함의점

제주 4·3사건은 3만 명 이상의 양민이 학살된 비극적 사건이자, 올해로 사건발발 72년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후속세대들은 이 사건을 대중매체나 역사적 전적(典籍)에 의존해 간접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는 제주 4·3사건의 중요한 학습공간이자 기억의 저장소이다. 유튜브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이해하는 이용자 수가 특정 스크립트에 따라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다른 어떤 대중매체나 역사서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유튜브의 재현방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기억 공동체의 기억망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적어도 제주 4·3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기억은 물론 그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들이 유튜브 상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체계에 주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튜브상으로 재현된 제주 4·3사건을 크게 세 가지 연구 문제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유형(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에 따라 제주 4·3사건이 어떤 기억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매체유형에 따라 제주 4·3사건이 어떤 허부 기억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매체유형에 따라 제주 4·3사건의 시·공간성과 상징성이 어떤 기억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위의 세 가지 연구문제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후속 세대들의 기억 현실을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상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구글(google) 유튜브에 올라온 제주 4·3사건 스크립트 가운데 추출한 180개의 데이터를 미디어 프레임과 사회적 기억 이론을 적용해 다중응답 방식으로 내용 분석했다.

1) 결론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방식은 주제적 기억 프레임이 일화적 기억 프레임 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통매체 유튜브가 4·3사건을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국가적 제도나 해결방법에 주목하는 주제적 기억 프레임으로 다룬 데 반해, 개인매체 유튜브는 개인의 감정, 경험, 그리고 회고와 관련된 일화적 프레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언론의 기억 프레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서 사건을 둘러싼 갈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사건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사건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의 순서로 언급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법 제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프레임은 매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튜브형 전통매체는 책임소

재 프레임을, 유튜브형 개인매체는 사건원인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한편 언론의 기억 프레임을 구성하는 하부 프레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제주 4·3사건을 규정한 언론의 하부 프레임은 양민학살, 무장봉기, 좌우이념갈등, 자주독립운동 순으로 언급됐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4·3사건은 양민학살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상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에 대한 이 같은 성격규정은 선행연구 결과(현혜경 등, 2020)와 부합한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의 성격규정에 대해 전통매체는 무장봉기를, 개인매체는 좌우이념갈등 프레임을 각각 더 많이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제주 4·3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은 경찰과잉대응, 도민 거리시위, 관료들의 부정부패, 남한단독선거 순으로 언급됐다. 4·3사건이 일어난 일차적 원인은 경찰과잉대응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개인매체는 남한단독선거와 미군정의 억압과 술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셋째, 제주 4·3사건의 도덕적/윤리적 평가는 양민학살, 공포정치, 보복과 탄압, 빨갱이 낙인찍기 순으로 언급됐다. 4·3사건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는 양민학살이 가장 비판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기득권 세력 유지나 약탈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됐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공포정치를, 개인매체는 보복과 탄압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넷째, 제주 4·3사건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는 군인과 경찰, 이승만 정부, 미군정, 좌익세력 순으로 언급됐다. 4·3사건이 갈등을 빚게 된 주체로는 당시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지목되었다. 전통매체와 개인매체 모두 군인과 경찰을 일차적 책임 주체로 꼽았지만, 전통매체는 이승만 정부를, 개인매체는 미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제주 4·3사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이승만 정부, 군인과 경찰, 미군정, 좌익세력 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4·3사건은 이승만 정부, 그리고 군인과 경찰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 주체자로 지목됐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군인과 경찰, 개인

매체는 미군정과 좌익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여섯째, 제주 4·3사건의 문제해결 방법은 사건진상 규명, 정부사과, 정부보상, 가해자 사과, 추념일 지정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4·3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건진상에 대한 규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 유튜브는 정부사과를, 개인매체 유튜브는 사건진상 규명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일곱째, 제주 4·3사건을 강조하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언급됐다. 4·3사건은 해당 사건의 속성대로 과거 회고적인 내용이 가장 많았다. 대신 제주 4·3사건 의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 유튜브와 개인매체 유튜브 모두 과거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해 차이가 없었으나 전통매체가 보다 미래 지향적인 프레임을, 개인매체는 보다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을 많이 드러냈다. 여덟째, 제주 4·3사건이 전개된 공간은 제주도 전역, 한라산, 적성구역, 연미마을 순으로 언급됐다. 즉, 4·3사건이 벌어진 공간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한라산을, 개인매체는 연미마을과 4·3평화기념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사건의 상징물에 대한 기억은 백비, 햇불, 감자, 오줌허벅 순으로 언급됐다. 4·3사건을 드러내는 상징 기호로 어떤 연유에서인지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지 못한다는 의미의 백비(白碑)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매체별로 보면, 전통매체는 백비를, 개인매체는 햇불(방화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2) 역사적, 이론적 함의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유튜브의 중심 기억 프레임은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튜브는 전체적으로 제주 4·3사건이 지니는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는데 맞추었으며, 이

와 함께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과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4·3사건이 7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건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4·3사건이 양민학살, 좌우이념갈등, 무장봉기 등으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 양민학살이 전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기억 프레임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는 제주 4·3사건이 기억 후속세대들에 의해 양민학살로 성격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혜경 등, 2020).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인매체의 경우 양민학살과 함께 좌우이념과 무장봉기 관점에서 제주 4·3사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통매체가 제주 4·3사건을 이승만 정부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매체는 좌우세력간의 이념갈등과 함께 무장봉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매체와 개인매체들 간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상이한 성격규정은 사건의 원인에서도 정합적으로 재현된다. 전통매체는 제주 4·3사건의 일차적 발생 원인을 경찰과잉 대응에서 찾으면서도 관료들의 부정부패 역시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개인매체 역시 경찰과잉 대응을 사건의 일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개인매체는 남한단독 선거와 미군정의 억압과 술책을 사건발발의 주요 원인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매체 유형별 성격규정과 발발원인의 차이는 문제해결 프레임에서도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전통매체는 제주 4·3사건의 해법을 정부사과에서 찾고 있는데 반해, 개인매체는 사건규명에 더 비중을 두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전통매체는 사건규정을 양민학살로, 사건원인을 경찰과잉대응과 관료부패에서, 그리고 사건 해결책을 정부사과에 찾는 형식으로 프레임링 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군인과 경찰력이 대량 학살을 낳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역사관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개인매체는 4·3사건을 좌우이념 갈등으로 규정하고, 남한단독 선거를 사건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나

아가 사건규명을 문제해법의 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전통매체는 이승만 정부의 무장진압과 남한단독 선거를 사건의 요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매체는 좌우의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사건의 요체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억의 시간성은 매체속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주로 과거 회고적이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기억되고 있었으며, 한라산도 주요한 사건 공간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4·3사건의 상징물은 아직도 망자의 이름을 적지 못한 빈 비석을 의미하는 백비(白碑)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주 4·3사건을 다루는 유튜브들은 그것이 전통매체인든, 아니면 개인매체인든 사건의 규정, 원인, 사건주체자의 행위 그리고 해법이 상호관계적으로 연결되어 프레이밍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역사적 논증은 결국 그것이 어떻게 성격규정이 되는 지에서 출발해, 그 사건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발되었는지를 밝힌 뒤, 마지막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수준으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상에 재현된 제주 4·3사건이 일화적 기억보다 주제적 기억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유튜브는 개인 미디어로 많은 경우 개인의 경험적 소재나 주제, 그리고 관점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한 제주 4·3사건 연구결과를 보면, 기억 후속세대들이 예상과는 달리 주제적 기억 프레임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법을 역사적 배경이나 제도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체계가 기억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주 4·3사건 기억체계에 대해 전통매체는 정부, 국가, 사회와 같은 거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개인매체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경험 영역으로 좁혀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유튜브의 기억체계의 특성

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유튜브 상에 나타난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 프레임 연구를 통해 유튜브가 기억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억 저장소로써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유튜브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한계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추모 경험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Makhortykh, 2019). 유튜브는 현실 속에서 실재적 의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의례를 확장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Huttunen, 2016). 기억 후속세대들은 유튜브의 이런 기능에 따라 특정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권위 있는 자원(authoritative resources)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mit et al., 2015). 유튜브는 역사학자 카(Carr, 1961)의 주장대로 과거와 현재의 소통 기억(communicative memory)을 생산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Horsti, 2017). 유튜브는 기억 담론 간에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성을 증가시키며, 과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거나 추출하며, 또는 과거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한다(Hoskins, 2009). 유튜브는 과거의 사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억의 주요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유튜브 상에 나타난 희생자에 대한 가상기억은 공적매체에 의해서든, 아니면 개인의 사적매체에 의해서든 추모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며, 애도의 정치학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사회적 기억과 개인적 개인으로 구분해 서로 비교해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후속 세대들의 개인적 기억 재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은 기억연구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억연구가 있었지만, 사회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을 비교한 사례는 많지 않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집단

적 기억망과 개인적 기억망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과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런 점에서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사회적 기억과 유튜브형 개인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개인적 기억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은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매체는 일정한 작업적 규범과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보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 유튜브는 개인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전통매체와 같은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개인적인 가치나 정서가 반영될 여지가 많다. 이런 특성의 차이를 지니는 매체 간의 기억비교 연구는 향후 기억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유튜브 기억연구를 통해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전이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4·3사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한계와 향후연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억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의 부족으로 기억체계를 이론적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제한된 미디어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이 덜 된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 프레임이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양적분석을 통해 드러난 기억 프레임이 제주 4·3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늘리고, 동시에 전통매체와 개인매체에 드러난 질적 담론분석을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여수·순천사건, 6·25 한국전쟁, 광주 5·18민주화 운동 등을 대상으로 기억연구를 폭넓게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권 5호, 199-231.
- 권귀숙 (2003).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도연구>, 24집, 133-167.
- 권귀숙 (2004). 기억의 재구성 과정: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권 1호, 107-130.
- 김광우 (1994).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민 (1999). 4·3 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 4권 3호, 338-424.
- 박동숙·이재원·정사강·강혜원·김혜원 (2014). 끝나지 않는 기억전쟁: 제주 4·3을 둘러싼 뉴스미디어의 기억지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9권 4호, 43-83.
- 박명립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이·임지은·황장선 (2018). 유튜브 브랜드 채널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광고홍보학보>, 20권 2호, 95-151.
- 박찬식 (1998).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제주근현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5권, 41-54.
- 송혜림 (2019). 감정의 재의미화와 기억의 해방. <한국민족문화>, 70호, 251-278.
- 이관열 (2003).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 <사회과학연구>, 21호, 60-74.
- 이완수 (2017). <부고의 사회학: 한국 죽음기사의 의미구성>. 서울: 시간의 물레.
- 오세욱 (2019). 알고리즘으로 본 유튜브의 미디어 지향. <관혼저널>, 61권 1호, 11-17.
- 정민아 (2013). 유튜브 역사 다큐멘터리 연구. <영화연구>, 58호, 397-425.

정용복 (2020). 언론은 제주 4·3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보수지와 진보지, 지역지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399-439.

조남수 (1988). 4·3 진상, 월간 관광제주.

조명기 (2018). 제주 4·3 사건을 기억·재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 다큐멘터리 <비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1, 97-132.

조명기·장세용 (2013). 제주 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역사와 세계>, 43호, 205-235.

현혜경·김석운·김은정 (2020). 제주4·3사건 기억의 후세대 세대 계승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20권 3호, 99-162.

와이즈앱 (2018, 5, 15). 유튜브, 전 연령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플래텀>. Retrieved from <https://platum.kr/archives/1003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 제주: 내내로 전자출판.

제주4·3평화재단 (2017). <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하나CNC 출판.

제주4·3평화재단 (2018). <제주4·3 바로알기>. 제주: 도서출판 한그루.

Assmann, A. (2010). The Holocaust—A global memory? Extensions and limits of a new memory community. In *Memory in a global age* (pp. 97-117). Palgrave Macmillan, London.

Assmann, A. (2006). Memory, individual and collective.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9, 210-226.

Berger, R. J. (2017). *The holocaust,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collective memory: Beyond sociology*. Routledge.

Burgess, J. & Green, J. (2009). *YouTube: Digital media and society series*. Cambridge: Polity.

Burke, P.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100.

-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1-188.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lova, N. (2015). The politics of mourning: The virtual memorialisation of British fatalities in Iraq and Afghanistan. *Memory Studies*, 8(3), 267-281.
- Drinot, P. (2011). Website of memory: The war of the Pacific (1879-84) in the global age of YouTube. *Memory Studies*, 4(4), 370-38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ibson, P. L. & Jones, S. (2012). Remediation and remembrance: 'Dancing Auschwitz' collective memory and new media. *Journal for Communication Studies*, 5(10), 107-131.
- Halbwachs, M. (195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 Harris, C. B., Paterson, H. M. & Kemp, R. I. (2008). Collaborative recall and collective memory: What happens when we remember together?. *Memory*, 16(3), 213-230.
- Haugbolle, S. (2005). Public and private memory of the Lebanese civil war.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5(1), 191-203.
- Hirsch, H.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 Hoskins, D. (2009). "Do You YouTube?": Using online video in women's studies courses. *Feminist Collections: A Quarterly of Women's Studies, Resources*, 30(2), 15-18.

- Hoskins, A. (2003). Signs of the Holocaust: Exhibiting memory in a mediated age. *Media, Culture & Society*, 25(1), 7-22.
- Horsti, K. (2017). Communicative memory of irregular migration: The re-circulation of news images on YouTube. *Memory Studies*, 10(2), 112-129.
- Hume, J. (2000). *Obituaries in American culture*. Univ. Press of Mississippi.
- Huttunen, L. (2016). Remembering, witnessing, bringing closure: Srebrenica burial ceremonies on YouTube. In *Memory in a Mediated World* (pp.244-260). London: Palgrave Macmillan.
- Zarecka, I. I. (2017). *Frames of remembrance: the dynamics of collective memory*. Routledge.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on, R. G. & McLennan, B. Scharzy D. Sutton (eds.) Popular Memory Group (1982).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 Writing and Politics*.
- Kihlstrom, J. F. (2002). Memory, autobiography, history. *Proteus-Shippensburg*, 19(2), 1-6.
- Knudsen, B. T. & Stage, C. (2013). Online war memorials: YouTube as a democratic space of commemoration exemplified through video tributes to fallen Danish soldiers. *Memory Studies*, 6(4), 418-436.
- Langer, L. L. (1991). *Holocaust testimonies: The ruins of memory*. Yale University Press.
- Levy, D., & Sznajder, N. (2006). *The Holocaust and memory in the global age* (Vol. 67). Temple University Press.
- Makhortykh, M. (2019). Nurturing the pain: audiovisual tributes to the Holocaust on YouTube. *Holocaust Studies*, 25(4),

441-466.

- Makhortykh, M. (2020). Remediating the past: YouTube and second world war memory in Ukraine and Russia. *Memory Studies*, 13(2), 146-161.
- Meyers, O., Neiger, M. & Zandberg, E. (2014). *Communicating awe: Media memory and Holocaust commemoration*. Springer.
- Neuman, W. R., Neuman, R. W.,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News and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mean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ick, J. K. (1999). Collective memory: The two cultures. *Sociological Theory*, 17(3), 333-348.
- Schwartz, B. (1996).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08-927.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mit, R., Heinrich, A. & Broersma, M. (2017). Witnessing in the new memory ecology: Memory construction of the Syrian conflict on YouTube. *New Media & Society*, 19(2), 289-307.
- Young, J. E. (1993).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Yale University Press.
- Zarecka, I. (2017). *Frames of remembrance: The dynamics of collective memory*. Transaction Publishers.

투 고 일 자: 2020년 10월 05일

심 사 일 자: 2020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2월 04일

Abstract

How is the Jeju 4·3 incident remember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media YouTube” and “individual media YouTube”

Lee, Wan Soo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Jung, Yong Bok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Shin, Myoung Hwan

Adjunct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182 Jeju 4·3 massacres incident scripts uploaded on Google YouTube by applying the media frame and social memory theory in a multiple coding metho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thematic memory frames were more than the episodic memory frames in the way of memory for the Jeju 4·3 incident on YouTube. The media’s memory frame for the Jeju 4·3 incident was mentioned in the order of case regulation, incident conflict, cause of the incident, moral evaluation, and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relatively few suggestions on how to solve the problem of Jeju 4·3 incidents. Looking at the memory system of the Jeju 4·3 incidents by media attribute, the traditional media mentioned the responsibility frame, and the YouTube-type media mentioned the cause frame. On the other hand, the aspects of the sub-frame constituting the memory frame of the pr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rame of the media regarding the Jeju 4·3 incident regulation wa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order of massacre of the people, armed uprising,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and independence movement.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there was a difference by referring to armed uprisings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a and the frame of left-right ideological conflict in the case of YouTube. Second, the causes of the Jeju 4·3 incident were mentioned in the order of police overresponse, street demonstrations, corruption by bureaucrats, and the South Korean single election.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were mentioned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a, and in the case of pure YouTube, the South Korean single election and the repression and tactic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ere relatively mentioned. Third, the moral/ethical evaluation of the Jeju 4·3 incidents was mentioned in the order of massacre of the people, terrorism, retaliation and repression, and red flagging. By media attributes, traditional media mentions terrorism, and YouTube mentions retaliation and repression. Fourth, the problem-solving methods of the Jeju 4·3 incidents were mentioned in the order of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the case, government apology, government compensation, apology for the perpetrator, and designation of the anniversary date.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government apology was mentioned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a, and YouTube was relatively more mention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Fifth, the subjects that caused the conflict over the Jeju 4·3 incidents were mentioned in the order of soldiers and polic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leftist forces.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as mentioned relatively often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a, and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YouTube. Six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Jeju 4·3 incidents wa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order of Syngman Rhee's government, soldiers and polic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leftist forces. By media attribute,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a, soldiers, police, and YouTube mention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left-wing forces relatively more. Seventh,

the point of time to emphasize the events of the Jeju 4·3 incidents was mentioned in the order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media and pure YouTube, focusing on past content. Eighth, spaces emphasizing the events of the Jeju 4·3 incidents were mentioned in the order of the entire Jeju Island, Hallasan, Jeokseong District, and Yeonmi Village. In terms of media attributes, Hallasan was mentioned in traditional media, and Yeonmi Village and the 4·3 Peace Memorial Hall were mentioned relatively often for pure YouTube. Researchers examined the memory frame of the Jeju 4·3 incident on YouTube and discussed how it can be transferred to the event memory of subsequent generations.

KEYWORDS Jeju 4·3 incident, YouTube media, memory frame, social/individual memory, memory community